

#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성도들의 모든 대화를 성령께서 듣고 계십니다.  
모든 대화 주제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주제가 되도록 합시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12:18)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12:14)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15:23)

## 할수록 좋은 말

### 영적인 이야기,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

1. 은혜 받은 이야기
2.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
3.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이야기
4. 성경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기
5. 말씀을 새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한 이야기
6.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7. 우리교회 교역자들, 목자들, 성도들에 대한 장점 말하기
8.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9.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10.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

## 피해야 할 말

### 세속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1.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심한 농담
2. 성적인 뉴앙스가 담긴 농담
3. 물질적인 관심이 두드러진 이야기 (예: 부동산)
4.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물질, 자식, 재능 등)
5.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이야기
6.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이야기
7.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꼬는 이야기
8.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
9. 교회나 교역자(우리교회와 다른 교회들)를 비난하는 이야기
10. 정치(경제 등) 지도자들을 비하시키는 이야기

## 한번도 불평 안하기 운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심한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5-30회의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의 불만족이나 힘든 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고, 비난하고, 문제점을 꼬집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한번도 불평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 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불편한 것과, 힘들고, 싫은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이때 허물이나 단점은 사랑으로 덮어서 안본 것으로 넘겨 버리고, 대신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항상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가능성과 희망을 꿈꾸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렘29:11)

1. 환경이나 사람과 관계 등에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먼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물어보라. 절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교역자 혹은 목자/목녀에게 상담을 하라.
2. 어떤 문제나 힘든 사건이 닥치면 즉시 반응하기 전에 먼저 장단점을 따져 보아라.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장점도 있기 마련이다. 이때 장점만 크게 확대해서 보아라. 단점은 그냥 넘어가라. 단점을 절대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 기억에서 지워라.
3. 교회운영에 대해 건의 사항이 있을 때는 먼저 이것에 대해 기도하라. 그래도 꼭 필요할 때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건의한다.
4.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들어 내기 좋아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남의 이야기(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 꼭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칭찬만 말해야 한다.

▶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경우, 고무밴드를 반대 손목에 옮겨 찬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옮기는지 세어 보세요. 자신이 의식할수록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불평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불평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적한 사람도 고무밴드를 옆 팔로 옮겨야 합니다. 일주일동안 옮긴 전체 횟수를 적어서 목장모임에서 나눠 보십시오. 계속해서 4주간동안 한 번도 불평을 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주간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습관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